

## 영원한 백제 여인... 도미의 아내

백제시대 서울 부근 작은 마을에 도미 부부가 살고 있었다. 도덕과 의리를 소중히 하며, 이웃에게 신망을 얻어 인근에 칭찬이 자자하였다. 또한 둘은 서로 금슬이 좋기로 소문이 났다. 도미의 처는 용모가 아름다운 데다가, 정절이 곧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두 부부의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백제의 임금 개루왕에게까지 전해졌다. 왕은 도미 부인의 소문에 궁금중을 거둘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도미를 불렀다. 머리를 조아려 귀를 기울이던 그에게 임금의 말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내, 너의 소문을 익히 들었노라. 듣기로 너의 처가 그토록 아름답다 하는데, 내 이미 많은 미인들을 보았으나, 길모습이 아름답다 하여 마음까지 그런 여인을 보지는 못했노라. 너는 아내의 정절을 믿느냐?”

도미는 잘라 대답하였다. “믿사옵니다.”

왕은 비웃는 듯이 말을 받았다.

“무릇 사람들이 부인의 덕은 정절에 있다 하는데, 보는 사람이 없고 어두운 곳에서 그럴듯한 말로 꼬여내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여자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아내를 믿는 도미의 태도는 굳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헤아리기 어렵다 하나, 신의 아내 같은 여인은 비록 죽는다 해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왕은 소문난 도미부인의 미모도 탐이 나기도 했거니와, 또한 여인의 정조를 시험해보고 싶기도 했다. 왕은 그날 밤 거짓으로 일을 꾸며 도미를 궁궐에 머물게 하였다. 그리고 신하 한사람을 왕처럼 꾸며 도미의 집으로 보냈다.

한편, 도미의 아내는 홀로 남아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 앞에 나타난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다. 말을 탄 화려한 차림의 남자가 수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서있는게 아닌가?

말을 탄 사내가 위엄을 갖춘 목소리로 백제의 왕이라 하며 말하기를,

“내 그대가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노라. 그래서 도미와 내기를 하였고, 이제 내가 그대를 얻게 되었으니, 내일부터는 궁궐에 들어와야 할 것이다. 이제 그대는 궁인이고, 나의 아내가 된 것이다.”

그러나 도미의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결코 내기를 했을 턱이 없음을 자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생각은, 분명 남편에게 불길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는 예감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우선 발등에 떨어진 위기를 면하는 것이 급한 일이었다. 여기에 생각이 미친 도미의 아내는,

“왕께서 농담을 하실 리가 없으니, 제가 감히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대왕께서 먼저 방에 들어가 계시오면 제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대신 계집종을 단장시켜 방으로 들여보냈다. 겨우 위급한 상황을 모면한 셈이었다.

그러나 곧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안 된 개루왕은 격분하였고, 궁궐에 불모로 잡혀있던 도미를 끌어내었다. 그리고 죄 없는 도미에게 잔인한 형벌이 내려졌다. 두 눈을 뽑아 버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조그만 배에 태워 강물에 띄워 보냈다.

도미의 아내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자신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남편이 만신창이가 되어 죽음의 길을 떠났으니, 이제 자신도 이제 살아야 할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개루왕은 여전히 그녀의 아름다움을 탐할 뿐이었다. 왕은 도미의 아내를 잡아들인 것이다.

“네 남편이 죽었으니 정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너는 내 것이니라.”

끔찍한 명령이었다. 하나 도미의 아내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이제 남편을 잃었으니, 한 몸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더욱이 백성된 처지로 왕명을 어찌 어길 수 있으

리까? 그렇지만 대왕을 모시기에 몸이 너무 더러우니, 목욕을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도미의 아내는 밤이 이슬하자, 궁궐을 몰래 빠져 나와 강가에 이르렀다. 그리고 떠나간 남편을 생각하며 한참을 통곡하고 뉘이 나간 듯 앉아있었다. 그런데 홀연히 강물을 따라 작은 배 한 척이 점점 가까이 다가 오는게 아닌가? 얼른 배에 올랐다. 백제 땅을 빠져나갈 수 만 있다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도 좋을 것만 같았다. 배는 정처없이 흘러 천성도라는 섬에 이르렀다.

이게 웬 일일까? 섬에 발을 디딘 그녀의 눈 앞에, 홀연히 남편이 나타났다. 부부는 얼싸안고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 가진 것이라곤 불편한 몸 뿐이었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다시 만난 부부는 풀뿌리를 캐어 연명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고, 마침내 고구려에 이르러 살다가 여생을 마쳤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와 『오륜행실도』에도 전해진다. 기록에는 ‘개루왕’이라 되어 있으나, 아마도 백제 21대 왕인 개로왕일 것이다. 도미의 전설은 몇 곳에서 전해진다. 『동국여지승람』에는 광주목[현 경기도 하남시 인근]에 ‘도미진’이 있다고 하며, 이곳을 도미의 눈을 빼 던진 나루라 하고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옛 수군절도사영이 위치한 곳에도 도미의 이야기가 전한다. 그리고 소성리에는 도미부인 사당[정절사]가 있고, 영정이 걸려있다.

마치 전라도 남원에 춘향의 사당이 있고, 경상도 진주에 아랑의 사당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이제 춘향과 남원, 아랑과 진주는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렸다. 전설이 연고를 가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미 부인의 이야기는 백제의 이야기요, 보령 땅이 고향이 된다.

한편 소설가 박종화는 도미 설화를 소재로 ‘아랑의 정조’란 글을 썼다. 그리고 최근 이 설화를 바탕으로 ‘몽유도원도’라는 영화가 제작되고 있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보령을 도미 부부의 고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충청학연구부>